

신산업융복합 혁신공간 조성 착착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4월 준공 예정 2023년까지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전북대 산학융합프라자 등 조성

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곳곳에 감소기업을 육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혁신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와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전북대 산학융합프라자' 등을 조성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총사업비 243억원을 투입해 29개사의 기업입주공간과 지원공간 8실을 갖춘 지하2층~지상5층까지 연면적 9,200㎡의 규모로 건립 중이다.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곳을 스마트미디어 분야 등 미래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분야 중소·창업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특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기 공장부지 마련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거리 창출을 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2월 중 입주기업 28개사에 대한 모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스마트시티과(063-281-246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시는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창업·초기기업 육성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육성형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한다.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에는 총사업비 280



김승수 전주시장은 8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억원이 투입되며, 43실의 기업입주공간을 갖춘 지하2층~지상5층까지 연면적 9889.95㎡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이곳이 향후 전주지역 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지역 혁신주체 등이 모여 혁신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36억원을 투입해 전북대 산학융합플라자를 신축하고 있다. 전북대 산학융합 플라자에는 산·학 협력 전문성을 키우고 취·창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나노·탄소·바이오 분야를 이룰 50여 개의 혁신셀과 디자인스튜디오, 머신숍,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위한 공동 실험실습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서 전주지역 대학 연구진과 학생, 기업 지지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조성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4대 지식산업센터 중심을 창업 거점공간을 키워나가고, 지역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거리를 키워나갈 것"이라며 "기업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시설과 교육시설들을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의 인재를 키우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농지소재지 등 주민센터서 접수

전주시는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2022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와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 단가는 1ha당 50만 원으로, 농업인의 경우 최대 30ha까지,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50ha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농지소재지 등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와 신청방법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가능 및 형상 유지 등 이행점검을 실시해 대상자를 결정,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중

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확정일인 5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해 경영체 등록을 변경하는 등 대상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증명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논활용 직불금을 해당 농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여행 추억 간직할 기념품 공모전 실시

시, 4월 15일까지 진행... 15개 내외 공모작 선정키로

전주시가 전주를 찾는 여행객이 사거나 선물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 기념품을 발굴한다.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국내·외 관광객이 전주여행의 추억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2 전주여행 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개인 및 업체, 지역 제한 없이 사업자등록이 된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관광 BI(YOUR TASTE JEONJU) 등을 활용한 전주의 문화 또는 관광지의 특성을 모티브로 관광기념품으로 판매 가능

한 완제품이면 된다. 개인 또는 업체당 2작품(세트) 이하, 작품별 2만 원 이하의 완제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기간 내에 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제품을 접수한 후 대면심사를 거쳐 상품성·상징성 등을 고려해 총 15개 내외의 공모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작에는 향후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 예정인 팝업스토어 입점을 통한 판매 지원 및 상품 촬영 등을 지원하고, 특히 상위 10개 작품에

대해서는 300만원 상당의 매출 보증(팝업스토어 300만 원 미만 매출 시 차액분 매입) 혜택도 지원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새소식'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관광BI 이미지와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주상공예사회적협동조합(063-283-1052, naeson2014@naver.com)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시는 관광 BI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고 보급해 관광기념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맑고 깨끗한 물 안전공급' 주력

상수도 공기업 효율적 운영 등 수도행정 분야 4대 추진 전략 제시

전주시가 올해 상수도 공급 및 시설 용량을 늘리고 도심 외곽지역 등에 상수도 관로를 추가 매설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병호)는 8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맑고 깨끗한 물 안전공급'을 비전으로 한 수도행정 분야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깨끗한 수돗물 관리로 선진 상수도 행정선도 △친환경 하수관리로 사람중심 생태도시 구현 등이다.

먼저 시는 노후·고장 계량기 교체로 수돗물 수용가에 대해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고, 수도계량기 성능시험을 통해 우수한 신규 계량기를 공급하는 등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상수도 체납 단수 및 누수 등 민원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공지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노후화된 대성배수지를 이설해 해당 급수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시설용량의 확대에 장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시에, 상수도 수요량 변화에 따른 공급과 수급 능력의 적정성을 검토해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유수율을 88%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급·배수관 포설공사를 통해 농촌동과 도심 외곽지역 등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함으로써 급수 민원을 해소하고, 노후 상수관로 등 사고 발생시 긴급 누수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수에서 수도꼭지수까지 공급단계별 수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이와 함께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수질검사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확대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음용 물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하수관로 정비에도 집중한다. 올해는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팔복 1,2분구 등 7개 구 하수관로 218.1km, 배수설비 1만 3196개소에 대해 정비에 나선다. 특히 에코시티·효천지구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로 인해 유입하수량 및 오염부하량이 증가한 곳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장병호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올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수질관리의 안전성에 기여하고자 조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친환경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먹는 물 만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전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 청소년 모집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스스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오는 19일까지 야호학교 청소년 동아리 활동(3355 별별공리)에 참여할 만 13~18세 청소년 60명을 모집한다.

3355 별별공리 프로그램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은 5~6인씩 팀을 구성해 △디저트&카페 △요리 △역사 △독서 △4차산업(과학동아리 등) △토크 △공예 △밴드 △댄스 △생태탐방 △미디어 △드론 △여행 △봉사 등 원하는 활동분야를 직접 정하고 동아리 활동

을 경험하게 된다. 시는 청소년팀이 제출한 활동 계획서 심사를 거쳐 선발된 5팀에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5팀에도 야호학교 활동공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